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주일로 지킵니다.

교회학교는 주일예배 시간에 본당에 입학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또한 찬양예배 시에는 교육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 2023 상반기 성경대학과 살롬대학 봄학기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살롬대학, 히브리서 반, 시편 반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과 탕자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도록 기도합니다.

### - 살롬대학 (31명) -

유덕자 정복순 최죽희 이봉규 김찬진 김명자 김경숙 서정현 이화숙 박복순 심상필 김숙자 이인숙 김정희 김홍두 오영례 최창화 최광성 이은상 최임수 손태현 최형열 조하나 이용자 장석만 전용순 이규희 황선희 황재연 나옥녀 이경선

### - 히브리서 반 (33명) -

강은경 김경자 김애리 김양숙 김찬진 김혜란 나현주 남태영 노애리 백난희 석상화 송명원 송미령 위성남 유묘종 이상섭 이선희 이옥수 이은희 이정하 전금수 전윤주 정금희 조정옥 주화인 지성철 차영도 최재련 채교전 채형숙 채혜숙 허숙 홍석현

### - 시편 반 (16명) -

차영도 채교전 허숙 전인숙 김종태 남태영 위성남 김찬진 최형열 최종희 나현주 허미옥 송미령 이경선 서정현 정금희

## 교역자 하절기 목사복 착용

오늘, 5월 14일(주)부터 주일예배에 흰색 가운을 입으며 교역자들은 재킷을 입지 않고 반팔 목사복만 입고 심방, 새벽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중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제16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제직회 투표 결과 공고

### - 5월 21일(주일) 공동의회에서 제16대 장로 5명 선출 -

지난 주일(5월 7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실시된 제16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제직회 투표 결과를 공고합니다.

특별제직회에서는 총 123명의 제직이 참여하여 OMR 전산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집계 후 제직회장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득표순으로 발표한 배수 공천된 10명의 후보 중 개인사정 상 사퇴하는 후보가 있어 지난 순례자에 공고한 바와 같이 득표순, 임직순, 나이순으로 차순위자를 올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자세한 프로필

은 별도의 삽지에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일정은 5월 21일(주일) 찬양예배 후 실시되는 공동의회에서 제16대 장로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배수 공천된 후보자 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이 선출되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직회 이후 배수 공천된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허락되지 않으며, 적발될 시 후보자에서 제외됩니다.



1. 백도환



2. 예완식



3. 김영희



4. 임우택



5. 백승갑



6. 한상준



7. 장윤기



8. 옥종호



9. 황병석

##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



손달익 위임목사

매해 5월 둘째 주일은 아버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이주일을 통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자녀의 도리와 효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이고 정도임을 끊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경적 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처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열두 살이었던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능통하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려주는 성경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 예수님의 수많은 어린 시절의 장면 중 예수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순종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된 효의 자세임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8-9절에는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 두 번째 모습은 신앙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돌봄, 존중, 지혜 등 많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경건하고 의로우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물질과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더라도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부모님의 신앙을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참된 효도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부모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복이자 선물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물려받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 히브리서 반을 마치며 -

강은경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큰 구원과 큰 안위를 받아 누림을 감사합니다.	이상섭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8주 동안 행복했습니다.
김경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히브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매 순간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선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애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은희	함께 공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김양숙	8주간의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정하	말씀 안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힘이 많이 됩니다. 감사한 성경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김찬진	그리스도의 초보를 뛰어넘어 심오한 신앙의 길을 보여 주는 위대한 성경 히브리서!	전윤주	성경공부를 통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13장의 짧은 히브리서를 창세기 1장과 연결하며 폭넓게 공부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시 30분의 시간으로 전용한 선택도 좋았습니다.	정금희	히브리서를 잘 이해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동행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나현주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안식」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릴 안식을 상속받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하는 뜻 깊은 성경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조정옥	조원영 목사님 히브리서 말씀에 큰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죄를 부리 뺏고 믿음, 치유, 더 성장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남태영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알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주화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목사님 8주 동안 귀한 말씀 가르치심에 감사합니다.
노애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끝판왕!!	지성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난해하고 저자 미상인 히브리서를 조원영 목사님의 명쾌한 해석으로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난희	2, 2, 3, 3, 3, 탁월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차영도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상화	실용과 효율, 간지에서 스위치 이제는 플렉스 시대에 복음은 인기가 없다. 하지만 진리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복음을 대하리요? 세 파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채교천	십자가의 승리로 새 언약을 확정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생의 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송명원	어려울거라 생각했던 히브리서... 정말 어려웠지만... 조원영 목사님의 명강의 덕분에 즐겁고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형숙	신앙의 성숙과 실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성남	우리 존재의 목적 : 존재됨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상황에 속지 않고,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채혜숙	8주 동안 히브리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묘종	히브리서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각 장별 소주제를 따라 읽으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석현	히브리서 강의를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시편 반을 마치며 -

차영도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열	신학을 뛰어넘어 참된 신앙의 길을 함축된 말로 기록된 것을 한 권 한 권 풀어가며 저주와 탄원을 지나 기다림 속에 찬양을 드리는 삶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채교천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는 것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지켜 묵상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현주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신다 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삶 속에서도 이것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허숙	자주 읽고 묵상하였던 시편이었지만 이번 시편 강의를 통하여 시편을 구조적으로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허미옥	우리의 삶에서 탄식으로 이어질 때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체험하며 시편의 말씀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전인숙	어려운 시편이었는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송미령	기가 막힌 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절절하게 호소하던 시인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찬양하는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현종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김종태	시편에 대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경대학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폭설에 갇혀 방향을 잃어 버린 듯 절망스러울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보내셨는지?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는 물처럼 녹아 없어지고 그 사랑이 모든 의문과 원망, 탄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며 내 존재가 주님의 목숨보다 크다는 걸 알려주셨을 때 어떤 원망도 질문도 필요 없음을 알았습니다.
남태영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서정현	시편 공부는 저의 신앙성장 과정이 순서대로 정리된 것 같은 책임입니다. 삶의 과정 중 탄식, 분노가 감사 찬양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영광을 올리는 결말이 왜 그럴까 했는데 공부를 통해 논리적 정리에 감탄했고 목사님께서 신학적으로 풀어주셔서 더욱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위성남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목회자세미나 제1강으로 가르쳐 주신 시편을 평신도인 우리에게 다시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금희	시편을 읽으며 다윗, 모세, 솔로몬의 탄식과 찬양하는 이 시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국에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임을 고백하여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찬진	복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 죄, 오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탄원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해바라기

조한나 은퇴권사(시인, 3교구)

블로 타는 꽃  
 불의 녀을 지닌 꽃  
 불 먹은 가슴으로 피는 꽃  
 화판마다 불꽃으로 타는 꽃  
 해바라기

알알이 火印(화인) 찍힌  
 불씨로 영그는 이마와  
 비비꼬아 울린 마디로 받든  
 해의 交信(교신)

해바라기 곁에 서면  
 불의 메시지가 受信(수신)된다  
 심장의 피와  
 따스한 체온으로 해독되는  
 불의 메시지가 수신된다



조한나 은퇴권사님께서 2023 살롬대학 미술반에서 그린 '고흐의 해바라기'



상동교회



서재필



전덕기 목사



헤이그 밀사

## 민족운동의 요람, 상동청년회

‘상동청년회’는 한국 민족운동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청년회의 정식 명칭은 상동엠펜청년회이다. 엠펜청년회는 1889년 5월 미국에서 시작된 감리회 청년신앙운동단체의 명칭이며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기독교 청년단체로도 알려져 있다. 엠펜은 감리회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고향인 엠펜워스(Epworth)에서 따온 것인데 엠펜청년회는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 신앙훈련은 물론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상동청년회는 감리회 교회인 상동교회의 엠펜청년회를 말한다.

1897년 조선에서도 엠펜청년회가 결성되었다. 면목상의 지도자는 평양 선교사 노블(W. A. Noble), 인천과 강화의 선교사 존스(G. H. Johns)였지만 실질적으로 청년회를 이끌었던 이들은 윤치호, 서재필, 전덕기 등의 조선 청년들이었다. 이 조선 청년들은 대부분 독립협회에도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엠펜청년회와 독립협회는 인적 구성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었다.

한편 상동교회는 의료선교사인 스크랜틴에 의해 설립되었다. 스크랜틴은 정동의 시병원을 운영하다가 지금의 상동교회 자리로 옮겼다. 정동은 외교관과 조선의 고관대작이 밀집해 있어 민중이 자유롭게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었다. 스크랜틴은 시병원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였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결국 그는 외국인이 살기에 안락한 정동에서 민중이 사는 곳을 찾아 떠나 남대문 근처로 이동했다. 그는 부지를 매입하고 약국과 병원을 차렸는데 병원 안에 예배실을 설치해 의료선교와 복음선교를 함께 추진하였다. 1893년 이 병원교회가 정식으로 구역회로 승격되면서 스크랜틴이 담임목사로 임명되었다.

독립협회가 고종의 명령으로 해산되었던 1898년 상동교회에서는 엠펜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상동청년회는 중간에 조선 청년들의 독립의지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것을 우려한 선교사들에 의해 잠시 해산된 적도 있지만 1901년 7월 스크랜틴이 모친의 병환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자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평신도로서 스크랜틴의 목회를 돕던 전덕기가 1903년 상동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자 상동청년회의 민족운동은 전성기를 맞이하여 서울과 인천, 평양 등지의 다른 교회 청년회와 연대하는 한편 지방에 지회까지 설립할 정도

가 되었다.

민족지도자로 이미 이름이 알려진 전덕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동청년회로 몰려들었다. 상동청년회는 상동교회 교인은 정회원, 교인이 아닌 사람은 준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구국의 의지를 가진 애국지사라면 그 동참을 막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회원으로 정식 가입하지는 않더라도 민족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이 후원회원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상동청년회는 대표적인 인물을 추리기도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사들이 포진하게 되었다. 그 중 김구, 이승만, 안창호, 이동휘, 이동녕, 이회영, 이시영, 우덕순, 이준, 이상설, 주시경, 정순만, 현순 등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상동청년회의 민족운동 중 널리 알려진 것은 1905년 “멕시코 이민교포학대 조사단 파견”, “을사조약 무효 상소운동”, 1907년 “헤이그 밀사 파견”이다. 1907년 조직된 비밀결사단체 신민회 역시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조직되었다. 이 지하실은 헤이그 밀사가 논의되던 바로 그 방이었다. 일제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전덕기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덕기 목사가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소천하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슬프다, 오늘날 세상을 떠난 전덕기 씨여”로 시작하는 장문의 기사를 내었다. 전덕기와 적대했던 일제마저도 그의 죽음에 슬픔을 표해야 할 정도로 조선인들 사이에서 전덕기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전덕기의 장례식에는 애국지사는 물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무시 받는 천민과 창기들까지 몰려들었다.

한 선교사가 편안한 곳을 떠나 가난한 이들을 찾아 왔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자신이 가진 선교사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선교사가 가진 복음의 정신은 그의 제자에게 이어졌다. 그의 제자는 민중을 위한 목회에 헌신하면서도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 약한 이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은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뜻을 가진 이들은 그의 동지가 되었다. 상동청년회는 그렇게 출발하여 한국민족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은 어린이주일로 교회가 이계홍 장로님과 당회원들, 권사회에서 만드신 짜장면을 성도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 후에 제16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제직회가 열렸습니다



5월 3일 루디아 · 비비전도회와 함께 한 수요 노방전도



한나전도회와 함께 한 개포자이 전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전단지 광고가 막혀 포기하고 있던 입주민 전도가 김일순, 선혜영 권사님의 끊임없는 전도 열정, 관심과 정보로 우편함에 물티슈와 순례자를 넣으며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 사무국 확장 리모델링 공사 안내

- 5월 마지막 주간까지 공사 예정, 임시사무실은 102호 소망부실로 -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은석 장로)는 1층 사무국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무국 확장 리모델링 공사는 7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산팀 2명의 합류로 사무실 확장이 필요해졌고 아울러 누수 확인 등을 위해 실시됩니다. 공사기간은 5월 11일(목)부

터 5월 마지막 주간까지 약 20일 소요될 예정이며 원활한 예배 지원과 성도들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사무실을 102호 소망부실에 마련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 성도들의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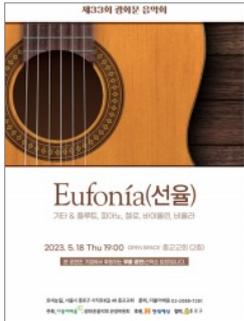
##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 등 정



- 8교구 장윤식 안수집사  
'제33회 광화문 음악회' Eufonia(선율) 기타연주회  
5월 18일(목) 19시 종교교회

### 식사 제공

- 2교구 최형열 장로 김찬진 권사 가정(자녀 결혼을 감사드리며)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1년2독	확인
5월15일	월	대하 6-7		5월15일	율 1-3, 암 1-9	
5월16일	화	대하 8-11		5월16일	욥, 온 1-4, 미 1-7	
5월17일	수	대하 12-16		5월17일	나 1-3, 합 1-3, 습 1-3	
5월18일	목	대하 17-20		5월18일	학 1-2, 숙 1-14	
5월19일	금	대하 21-24		5월19일	말 1-4, 마 1-4	
5월20일	토	대하 25-28		5월20일	마 5-9	
5월21일	주일	대하 29-30		5월21일	마 10-13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 70인전도대와 전도회, 선교회, 스테반회, 권사회, 교구가 함께 전도하는 개포4단지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소서.
-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튀르키예를 비롯한 재난과 고난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